

# - 꿈은 이루어진다. 나의 졸업 여정 -

사회복지경영학과 김\*숙

청춘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떠나고 싶은 배낭여행, 하지만 막상 떠나기까지의 갈등은 시간 제약, 경비제약, 누구와 떠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떠날 수 있다. 이 여행 속에는 마냥 즐겁고, 들뜨고, 행복하고, 낭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난도 있고 때로는 고통이라는 녀석과도 마주하게 된다.

짐을 꾸리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할 때 기운은 100% 충전 상태일 것이다.

집을 나선다는 것만으로도 가벼운 발걸음은 여행길을 재촉하게 되고 무거운 배낭의 무게도 아무렇지 않게 즐기면서 ~

새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영상 속에 한점 한점 추억을 남기고 맛있는 음식을 접하여 환호하면서 그래 이 맛이야~~~라며 즐긴다.

여행의 진한 맛은 단맛보다 쓴맛이 더 오래 기억되고 세월이 흐른 뒤에도 화제에 오른다.

여기저기 둘러보며 즐기다 보면 맨 먼저 발이 신호를 보내오면서 다리가 무거워지더니 등에 진 배낭은 자꾸만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은 경험은 비단 나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은 나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 필요할 때마다 한 장씩 꺼내 보는 달콤한 초콜릿 같은 맛일 것이다.

나의 졸업 여정도 이와 참으로 유사하여 첫 스타트 하는데 몇 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지인의 권유를 받고 이 나이에 굳이 4년을? 차라리 2년제를 다닐까!

갈등하며 세월만 삼키고 있다가 2018년 만학도로 입학하고 열심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나의 꿈은 사회복지사가 되어 시설을 차리고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것이 최종목표가 되었다.

직장의 근무시간은 3교대 일인삼역의 역할을 하며 1학년 때부터 총대를 맡고 책임감을 묵직하게 느끼며 학교의 봉사활동이 있는 날은 야간을 하고 뜯눈으로 동참하여 봉사가 끝난 후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겨 고개를 떨구고 졸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피식 웃을 수 있는 추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부산디지털대학교의 특성상 컴퓨터와 밀접해야 했고 강의 노트를 만들고 좀 더 원활한 수업을 위해 PDF로 묶어서 나만의 방식을 찾아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가 있었다.

두뇌는 내 것인데 도무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서술형 시험을 보는 날에는 죽어라 타자를 쳐도 왜 그렇게도 오타가 많이 나는지 입은 바삭 마르고, 가슴은 두 방망이질 하고, 손가락은 떨리고 심호흡을 한 후 겨우 진정한 후 마무리하고 나면 등 뒤에 땀이 흐른다.

이렇게 1년 2년~4년이 되는 해 학과대표를 맡게 되어 코로나19라는 복병 앞에 일 년의 행사 일정을 계획하며 공부만 하는 대학생이 아닌 열공! 해야 할 땀 열공! 하고 즐길 때는 맘껏 즐기면서 대학 시절의 꽃인 MT와 사복인의 밤을 모두에게 멋진 추억으로 남겨 주고 싶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총학에서도 그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게 되어 각 과를 나타낼 수 있는 홍보영상을 제작하라는 멋진 과제를 내놓았다.

사복경이라고 하면 교내에서 단합 최고! 선후배 교류 타과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단연 으뜸!

정말 자긍심을 느끼며 즐거운 맘으로 교수님과 선배님 인터뷰를 하고 제작진들과 서로 힘을 합쳐 드론을 띄워 영상물을 완성하였다.

전체 15개 학과가 투표를하여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는 순위 결정!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업치락 뒤치락 막바지 결정의 순간 사복경 단결의 힘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늦은 밤을 넘어 첫새벽까지 단톡방에는 축하와 환호가 메아리쳤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가슴을 졸이며 서로를 격려했던 것은 아마도 평생 기억될 것 같아 참 아름다운 추

억이다.

시상식을 하는 날 각과 대표님들이 사회복지경영학과는 단합이 잘되고 선후배 간의 끈끈한 결속력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대물림이라는 말을 하였고 아마도 이 대물림은 영원할 것이다.

천군만마 같은 임원진들과 전 학년이 함께 이룬 값진 보물이었다

학업과 학교의 각종 행사를 진행하며 배낭여행처럼 솔한 추억을 남기며 때로는 서로 갈등 하고 조율하며 더 좋은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 일사분란 하게 움직이다 보니 벌써 12월이 다가왔다.

언제나 가슴 떨리는 기말고사를 치르고 사복인의 밤을 축제의 밤으로 대미를 장식하며 파노라마처럼 지난 일 들이 활짝 펼쳐졌다.

지도교수님인 배의식 교수님과 이도은 조교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배의식 교수님의 넉넉하고 품위 있는 인품에 사복경은 단합할 수 있었고

이도은 조교 선생님은 여리디여린 가냘픈 몸에 어디서 그런 에너지가 솟아나는지 언제나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움을 준 덕분에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배낭 여행지에서 얻은 행복한 추억들을 인화하듯 졸업 후 목표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 또 다른 멋진 배낭여행 집을 꾸리려 한다.

꿈은 이루어지기에 꿈이다!!

#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다

노인복지학과 조\*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큰 어려움을 겪는다. 나 또한 40대 초반에 가진 모든 재산을 잃고 가정도 깨어질 상황의 위기를 겪으면서 삶에서 가장 큰 아픔을 겪었다. 심신이 황폐해진 가운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자아가 회복된 뒤 다시 내 삶을 돌아볼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나의 노후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나의 노후를 생각해 보니 지금 하고 있는 전산 관련 일을 60살이 넘어서까지 계속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60살이 되는 그 시점엔 초고령사회로 노인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테니 노인과 관련된 일도 많아질 것이고, 또한 노인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부터 노인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결과,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부산디지털대학교 노인복지학과에 편입하게 되었다.

늦다면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공부만큼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두 번째 대학 생활을 하면서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세우면서 공부를 했다. 첫 번째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에 **출결은 무조건 100% 유지하자**는 것이었다. 공부를 시작했던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고 나만의 학습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다. 특히나 편입을 하다 보니 바로 전공수업부터 듣게 되어 처음 듣는 용어들로 수업 듣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6개의 전공과목과 기초소양과목도 필수로 들어야 했기에 7개에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출결을 채우는 것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하루 계획을 세우고, 강의 들을 수 있는 시간표를 짜고, 강의 전용 텀과 무선이여폰을 구입하여 절대 출결은 놓치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계획에 따라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엔 엉덩이 붙이고 듣는 것이 힘들었는데, 30분, 40분, 1시간...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며 나만의 학습 루틴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그 결과 처음 힘겹게 만든 공부습관으로 졸업하기 전 마지막 수업까지 100% 출결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해서 들어온 이번 대학생활에서는 제대로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보자는 것이었다. 고3 때 대입시험을 전기, 후기 대학까지 모두 떨어지고 가정 형편상 재수는 절대 할 수 없었기에 전문대학을 가야만 했었다. 가고 싶은 대학도 없었기에 부모님이 앞으로 전망이 있고 남자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선택해 주신 부산전문대학(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과에 진학하였으나 나와는 너무나 맞지 않는 전공에 적응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시간만 지나가길 기다리다 졸업하고 군대를 갔었다. 그러다 보니 그때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고 성적도 별로 좋지 못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 핑계, 저 핑계 댈 수도 없으니 부끄럽지 않게 공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다. 타인의 인정보다 나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다. 그래서 강의노트뿐만 아니라 교수님이 정해주신 주교재도 항상 구입해서 보면서 공부했고, 특히 28년 만에 쓰는 리포트에 많은 신경을 쓰며 많은 자료들과 여러 사이트들을 찾아다니며 교수님들이 만족할 만한 리포트를 작성하고자 애를 썼던 것 같다.

또한 회사 사무실은 퇴근시간 이후가 되면 공부방이 되었다. 퇴근인 5시 반이 되면 직원들을 칼퇴근 시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강의 들으면서 간단한 먹거리로 저녁을 먹으며 9시까지 매일 공부를 했다. 시험 기간이나 리포트 쓰는 기간에는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서 보냈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결과 편입한 첫 학기부터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적을 받게 되었다. **평점 4.0점.**

이후부터 매 학기마다 조금씩 더 성적이 향상되었다. **3학년 2학기 평점 4.29점, 4학년 1학기 평점 4.43점,** 마지막 학기인 4학년 2학기에는 졸업하면 끝이니 대충 학점만 채우자란 생각이 아니라 학점 관리를 제대로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그 결과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전 과목 'A+'라

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4학년 2학기 평점 4.5점! 아이처럼 좋아하며 아내와 딸에게 뿌듯해하며 카톡으로 성적을 보내주며 자랑도 했었다. “여보, 딸, 아빠 이 정도면 열심히 했지?^^”

세 번째는 비록 사이버대학이지만 **대학생활에서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과 친해지자고 다짐했었다.** 내가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람들 때문이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회복됐기에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비록 사이버대학이지만 같이 공부하는 학우들과 만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다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다.

처음 사이버대학을 선택하면서 카톡 모임방에 참여하거나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회사 직원 중에 사이버대학을 다녔던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같은 과 학생을 만났다거나 학교를 가봤다거나 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나 혼자서 공부하고 졸업할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부산디지털대학교는 달랐다. 처음 담임 교수님이셨던 최유미 교수님의 개인 특 안내부터 달랐고 학년 과톡방 초대로 같은 과학우들을 알게 되면서 기존에 1학년부터 입학해서 3학년까지 올라온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산디지털대학교는 사이버대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교와 별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서 많이 놀라웠다. 기존 학우들은 1학년 때부터 회비를 모아서 졸업여행을 준비하고, MT도 가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있었고, 스터디 모임도 하고 있었다. 거기에 학교 총학생회에서는 해마다 체육대회까지 개최를 했었다니 이런 대학이 어떻게 사이버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학우들은 나보다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20대 대학생들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다들 마음은 어린 시절 그때 대학생 마음인 것 같았다.

첫 오프라인 만남 때 들었던 생각은 좀 더 빨리 학우들을 알았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과 미련이 살짝 스쳤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학우들과 친해지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것 같다. 학우들 중 카톡에 생일 알림이 뜨면 모두가 축하해 줄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생일 축하 인사를 해주고 커피 쿠폰이나 케익 쿠폰을 선물로 보내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 더욱 과톡방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과톡방에서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오프라인 모임도 참석하면서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그러다보니 동기들에게 공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나 학교에 대한 정보 등 많은 도움도 받았다. 그런 내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졸업식을 앞둔 지금은 앞장서서 동기들을 위해 정보를 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



〈사진1〉 2020년 8월, 3학년에 학우들과 미리 다녀온 거제도 1일 코스 졸업여행

훗쩍 지나가 버린 2년을 되돌아보니 부산디지털대학교를 다니며 제2의 대학생활을 한 덕분에 정말 감사한 3가지 경험을 한 것 같다. 첫 번째 경험은 능력 있는 과학우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과학우를 돕기 위해 총학생회 기획국장으로 1년간 총학생회 활동을 한 경험이다.

총학생회를 하면서 우리 학과 학생들만 알고 있다가 타 학과 국장님들과 대표님들도 만나게 되고, 영상에서만 뵈던 교수님들도 학교에서 직접 얼굴 뵈고 인사를 하는 등 좀 더 학교와 밀접해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비록 코로나 시기로 총학생회를 하면서 많은 행사를 할 수는 없었지만 학생들을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총학생회 임원들끼리 회의를 하여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였다. 신입생들에게는 부산디지털대학교의 각 학과를 소개하고 기존 재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과를 후배들에게 직접 영상을 만들어 소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교학 분위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하여 총학생회 다음 카페를 통해 진행하였다.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은 잠도 몇 시간 못 자는 날도 있었고 준비 마지막 날에는 PPT자료를 새벽까지 만든다고 코피를 쏟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하는 행사라 다들 엉성했고 부족함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학과의 학생들의 반응이 생각과는 반대로 너무나 엄청났다. 각 학과 홍보영상의 퀄리티는 너무나도 훌륭했다. 그 영상들로 인해 총학생회 다음 카페는 만들어진 이후 행사기간 동안 사상 최대의 방문자가 몰렸고 각 홍보영상 게시물은 최고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그동안의 힘듦과 피로가 한순간에 다 날아갈 만큼 행복함도 맛보았다. 대학생활 최고의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



〈사진2〉 2021년 10월 7일, 학과 홍보영상 콘테스트 행사를 마치고 수고한 총학 임원들과 한 컷

두 번째 경험은 4학년 때 두 학기 동안 신입생과 함께 했던 리더스클럽 리더의 경험이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과학우들을 만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도움을 받으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많았다. 만약 혼자 공부했다면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학우들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을 잊지 못한다. 그래서 나처럼 새롭게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내가 받았던 도움들과 거기에 나만의 노하우까지 더해져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듯하여 리더 신청을 하였다. 4학년 동안 20명 넘는 신입생 후배님들께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그들이 조금이라도 사이버대학 학습에 적응하기 쉽도록 가르쳐주고 같이 대화 나누고 상담도 해주며 1년을 보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카톡방에서 혼자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대답도 없던 사람들이 한 학기가 마칠 때쯤엔 선배님이라고 불러 주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 줬을 때 또 한 번 경험해 보지 못한 후배님들과의 정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 부산디지털대학교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험은 늦게 다시 공부하는 아들에게 보여주는 어머니의 응원과 지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 후기를 떨어지고 나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다시 재수는 생각지도 못하고 전문대를 보낸 것이 못내 미안했던 것이었는지 어머니는 지난 2년간 보여드렸던 나의 성적표를 보시며 너무나 장하다며 매 학기마다 칭찬해 주시며 행복해하셨다.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대학원에 진학하라고 지지하셨던 분도 어머니다. 어머니는 늦은 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의 든든한 응원군이시다.

부산디지털대학교에 편입을 할 때 거창하게 뭔가를 생각하며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이젠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청년 시절 4년제 졸업자가 아니어서 입사지원서조차 낼 수 없었던 시절에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나아질 나를 찾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간다. 다음 달부터 새롭게 부산디지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에 진학해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는데 부산디지털대학교에 원서를 지원했을 때만 해도 대학원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꿈은 절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일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나, 둘, 이루어 나갈 때 그것들이 모여 나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나처럼 어느 순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부산디지털대학교에서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란다.



〈사진3〉 2022년 02월, 졸업식을 앞두고 학과 동기들과 사진관에 모여서 마지막 추억 사진을 남기다